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4년 1월 1일 (월) 제 834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양영우 · 편집인 / 정수환
인쇄소 靑丘文化社

2024신년
메시지

부흥이 임하는 교회

<이사야44장1~4>



총회장 양영우 목사 (무코가와교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44 : 1~4)

소망의 새해, 축복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에 속한 모든 교회와 신도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평화와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57회 정기총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동경교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를 후원해 주신 각 교회와 총대, 그리고 신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제57회기 표어는 ‘마른 땅에 은혜의 샘이 솟는 교회’ (이사야44:3) 입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회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의 샘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고레스왕을 통해 이스라엘 베들레헬을 회복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43장-45장 말씀의 연속입니다.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와 성령강림의 은혜를 주시고, 변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로 귀화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스라엘로 귀화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직접적 화법으로 현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종,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포로 생활에서 사실상 바빌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

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종속된 존재도 아니고,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의 세력이 쥐고 있는 종속적인 속박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그들이 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측면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것의 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면, 그들은 어떤 장소,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자부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진정한 신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향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변영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창조, 교회의 탄생과 교회 안에 임재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024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역사가 116년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깨어나는 새 해가 되기를 바라며, 2024년은 전국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신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행보와 사회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2024년을 맞이한 각지방회장과 각단체장 포부

관동지방회장 <김용소 목사>



황적 연결을 중요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는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던 것들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동지방회에서도 4년 만에 “찬양과 말씀

의 밤”이 개최되어 많은 교회가 참여했고, 각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과 예배 후의 애찬회, 성경공부회와 바자회 등을 재개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휴전상태인 한국의 역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탄식과 슬픔을 끝내시고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방회장으로서 2024년은 이사야 43:18 ~ 19a에 있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싶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국에 만연한 부정을 규탄하고, 왕국의 멸망과 바빌론으로의 포로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통해 장래에 대한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이 희망의 메시지에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과 방화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고 소극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지방회 교회들이 점점 더 옆으로의 연결을 아끼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회장 <최화식 목사>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일대한기독교교회 5개 지방회 중에서 가장 작은 중부지방회는 지난 회기 때 아이린전도소가 탈퇴하고 조상호목사를 면직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카이치교회는 해산하게 되어 12교회에서 10교회로 되어 버린 총회

에서 가장 작은 지방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고 여기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종교개혁기념행사를 보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역동성있는 중부지방회를 봤습니다. 작은 지방회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회 행사도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임직원들과 함께 중부지방회의 각 교회를 격려해 주고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유명무실했던 부서를 다시 활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기독교단, 일본기독교회와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더불어 몇 년간 행하지 못했던 교역자회의 모임을 갖고 목회자의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살전1:6-7)” 고 말한 본이 되는 중부지방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관서지방회장 <박영자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 맺기

교회와 선교지의 수가 줄어들어 각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후계자 문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년들의 양육이 시급합니다. 한 교회나 선교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관계(고전 12:26),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살전 5:11)를 강화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부지방회장 <한승철 목사>



은혜와 능력을 받아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 집니다. 우리 서부지방회에 은혜가 임하여 재미있고 행복한 지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부지방회는 현재 13교회와 2전도소로 구성되고 소규모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의한 성령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회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선교협력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울산노회, 그리고 일본기독교단 효고교구와 일한교류신도대회(39회)를 통해서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부지방회는 각부 각기관에 있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3개 교회와 2개 전도소의 무목상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부지방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무목교회 등 재건 검토 워킹그룹]이 성립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한 해가 되어서 각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 산하에 속한 모든 지방회와 교회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서부지방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 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서남지방회장 <신치선 목사>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할렐루야!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초등학생들은 마냥 좋아하지만, 50대의 목회자로서 새해를 바라볼 때 먼저 사람에게서 신이 갑니다. 특히 교회의 어르신들, 총회의 은퇴목사님, 장로님들의 아픈곳이 늘어간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의 노하우가 느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저의 어리석음 때문일까요? 미련한 인생은 올해도 “주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해를 맞아 주님 앞에서 서남지방회를 바라보며 갖는 몇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장기결석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각 교회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담임목사가 세워져서 교회들이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올해에는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 재일 대한기독교교회의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올 해도 재일대한기독교교회의 모든 교회 위에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국청년협의회대표 <한선영 전도사>



서로 격려하는 관계를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고 여러분 모두 축복의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전국 각 교회의 청년들이 모여 말씀에 격려받으며, 또 교회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올해는 전국 각 교회의 기도와 응원, 그리고 청년들끼리의 연결을 통해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미 전협 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개교회 방문을 올해도 계속하며, 청년교육회, 여름수련회, 그 외에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하나하나의 땀 흘리는 움직임이 큰 소용돌이가 되어 전국에 묻혀있는 청년들이 그 안에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한편, 전협 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각자가 일상적인 일에 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전국개교회 방문도 임원 전원이 방문하는 것을 바랍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중 한 명이 주로 활동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는 변함이 없지만, ‘황무지에 길을 내어 사막에 큰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덕을 믿고, 오히려 힘을 받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 교회와 청년들과의 연결을 가진 전협에는 개교회의 청년회와는 다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협이 개교회의 청년회를 빼앗아 청년회를 텅 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하며 서로의 활동이 격려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과는 서로 격려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각 교회 여러분의 계속되는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zenkyokccj@gmail.com

전국교회여성연합회장 <송복희 권사>



여성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지를 품고

재일대한 기독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6:24」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2024년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전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라는 주제로 지난 2023년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11회 재일·일·한국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를 전국교회여성연합회로서는 처음으로 진행의 주체가 되어 연대교류회의를 견인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큰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는 은혜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제57회 정기 총회 때 선출된 새로운 임원단과 각 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여성이 한 명도 없음을 보며 여전히 남성 중심의, 시대와 동떨어진 벽을 느끼게 되는 총회였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낙담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적으로 세워진 여성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교회가 연합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도 「한국 교회 여성 연합회」 「일본 그리스도협의회 여성위원회」 「캐나다 장로교회 여성 선교회」와의 연계를 깊게 하며, 지속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자강하지 않고 우리들의 행사를 공정하신 주님께 맡기며 함께 성장해 가는 전국교회 여성연합회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도합니다.

전국장로회장 <신대영 장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돌이켜보면 이 땅으로 보내진 우리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가 감격이요 감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악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저버리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떠나 우왕좌왕 하곤 합니다. 새해 아침에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10여년간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동경교회가 이제는 주 안에서 회복되어 새로운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각 교회와 전도소가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중에서 이 땅을 울리는 한 사람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깨우는 회개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두고 온 고국이 죄우로 나뉘어 진영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악한 세력은 작은 일을 호도합니다. 없는 일을 날조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선한 역사에 도전합니다. 먼저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사회와 민족에게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권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북녘 혈벗은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역사를 예비하옵소서.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함께하시며 친구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大阪西成교회

창립100주년 기념예배 개최 '위로가 넘치는교회' 라는 비전아래 새로운 출발을

지난 2023년 11월 19일, 고베개혁파신학교 교장으로 20년간 교회에 일꾼 양성에 힘써온 牧田吉和(마키타 요시카즈)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오사카니시나리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집회가 열렸다.

오전 11시 기념예배에서는 40여 년 전 본 교회 신학생, 강도사로서 교회학교와 청년회 지도 및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 활동(안녕 어린이회)에 힘쓴 이근수목사가 개회기도를 했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성가대의 '주님은 교회의 기초' 의 찬양 후, 고린도후서 1:3-11을 본문으로 '위로가 넘치는 교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1986년부터 21년간 협력목사로 섬겼던 이태우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오후 3시에 가진 기념집회는 후세교회 전성삼목사의 개회기도,



나니와교회 김종현목사의 성경봉독(사도행전 2:41-47), 성가대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찬양 후, 1시간 동안 진지한 영적인 긴장감이 넘치는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교회 형성의 근본을 물어' 라는 강연이 있었다.

20년 전 본 교회 창립 80주년에는 '오사카니시나리교회 80년사' 를 편찬, 출판하고 80주년 기념집회를 영상을 통해 8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100주년 기념 집회에서는 그리스도교회의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몸(육체)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나타나야 하는 것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호소되었다. 교회의 모습, 현주소가 저출산 고령화의 어려운 과제, 코로나 사태의 시련, 초정보화 시대의 편리 지상주의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애찬회와 성찬의 임재감으로의 회귀를 호소했다.

강연후에는 오사카교회 정연원목사, 오사카북부교회 조영철목사, 오사카중앙교회 고영수목사의 축사를 통해 역사를 돌아보고 추억을 나누며 미래의 비전을 조명하는 축사가 있었다.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보내온 축문과 축전이 공개됐다.

이번 100주년 기념집회에는 총회장 양영우목사를 비롯하여 관서지방회와 타교단에서 교역자와 장로님들을 비롯한 많은 신도들이 참석하여 10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 신도들에게 교회는 개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회, 총회, 그리고 타 교단과의 교제 속에서 함께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 101세인 김원치원로목사의 딸들도 멀리서 찾아왔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들도 달려와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의 찬양 후, 관서지방회 회장 박영자목사의 축도로 집회를 마쳤다.

총간사 「근무체제」 관한 안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제57회 정기총회에서 총간사로 선출되었으나, 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니이하마그레이스(新居浜グレース)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총간사 업무를 하겠다는 제안을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12월17일에 가진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니이하마그레이스교회와 총간사직을 겸임하는 것이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임기 중(4년간)의 평시 업무에 대해서는 간사(김병호목사)를 총회 사무국에 두고 사무직원(장여명집사)과 함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상경 또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총간사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각 교회 교역자, 장로, 교우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간사 정수환

은퇴목사 동정

니이하마그레이스교회 안진남



저는 니이하마그레이스 교회를 2021년 5월 은퇴해 현재 72세입니다. 집사람과 둘이서 살고있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달에 평균 3번정도는 일본 기독교단 시코쿠교구 내의 교회에서 설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단에서는 목사 부족이 심각하고 무목 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봉사가 없을 때는 일본기독교단 니이하마바이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니이하마 그레이스 교회에는 예배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수환 목사님 사모임과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는 아침에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경작 면적은 한 300평 정도 있습니다. 인력으로 경작은 어려워 트랙터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수환목사님은 매주 월요일에 작업을 도와주십니다. 야채만들기에 있어서는 유기농을 고집하고 있어 수확한 작물은 니이하마 그레이스 교회 가족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2024年外キ協公開集会

日 時●1月25日(木) 18:30~20:30

／対面とオンライン併用

会 場●日本バプテスト広島キリスト教会(広島市中区舟入町127)

※広電江波線「舟入町電停」下車、徒歩1分

◇報告: 栗林克行さん「ひまわり&おりづる・フェスタ2023」

◇講演: 渡邊さゆりさん

「在日ミャンマー人の現在と難民・移民基金がめざすもの」

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 2024年／第38回全国キリスト者集会

～記憶をつなぐ、人をつなぐ、

地域から多民族・多文化共生の天幕をひろげよう～

日 時●1月26日(金) 18:30~20:45／対面とオンライン併用

会 場●日本バプテスト広島キリスト教会

<第一部>礼拝 ◇メッセージ: 今給黎眞弓さん

<第二部>集会 ◇崔善愛さん ピアノ演奏と証し

*オンライン参加のご希望の方は、

<https://forms.gle/GvabcmUeEYnpQNm86> に